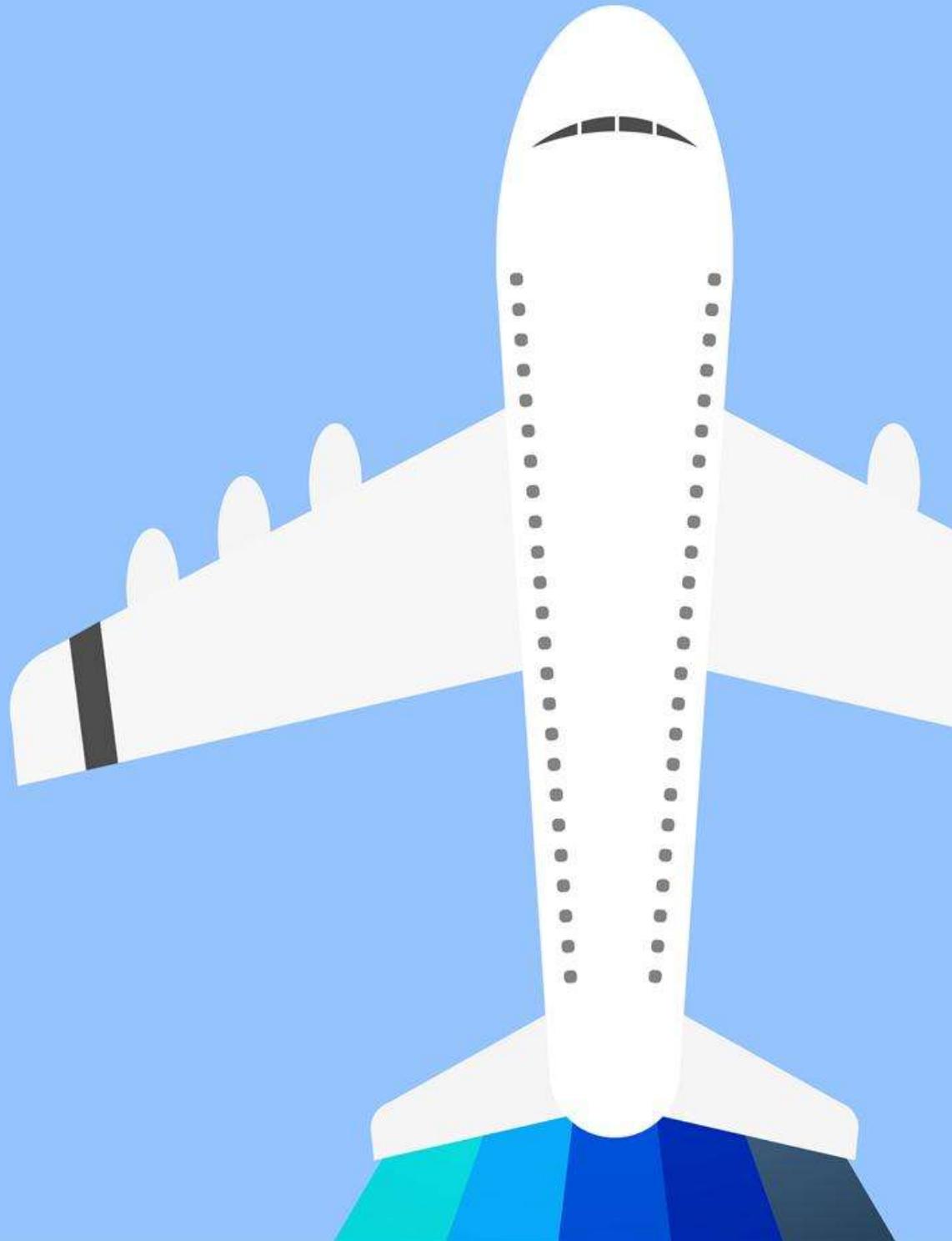


2021 해외출장 가이드

오스트리아

빈

Vienna



kotra

Korea Trade-Investment
Promotion Agency

목 차

I . 오스트리아 개황	1
II . 오스트리아 경제 동향	3
III . 현지 체류 정보	9

I. 오스트리아 개황

1. 국가 개요

국명	오스트리아(Austria, 獨文 Österreich)
위치	중부유럽 하부
면적	83,879km ² (남한 면적보다 다소 작음)
기후	대륙성 기후
수도	빈(獨文 Wien, 英文 Vienna)
인구	893만(인구밀도 : km ² 당 105.5명)
주요 도시	빈(189만명), 그라츠(29만명), 린츠(21만명), 잘츠부르크(15만명), 인스부르크 (13만명)
민족	오스트리아계 73.0%, 슬라브계 8.2%, 터키계 2.5%, 독일계 2.3%, 기타 14.0%
언어	독일어
종교	가톨릭 57.2%, 동방정교회 8.8%, 이슬람 7.9%, 개신교 3.3%, 무종교 및 기타 22.8%
건국(독립)일	국경일 10월 26일(1955년 중립국 선언 기념일)
정부 형태	내각책임제
국가 원수 및 총리	○ 대통령(임기 6년) : Alexander van Der Bellen (녹색당) ○ 취임일 : 2017. 1. 26.
	○ 총리(임기 5년) : Sebastian Kurz (국민당) ○ 취임일 : 2020. 1. 7.

2. 경제 지표

GDP	4,280억 달러
실질 경제 성장률	-6.7%(2021년 3.4% 예상)
1인당 GDP	50,023 달러
GDP 구성	1차 산업 1.3%, 2차 산업 28.4%, 3차 산업 70.3%
실업률	5.4%
소비자물가 상승률	1.4%

화폐단위	유로(유럽통화동맹 가입국)
환율	1달러=0.82유로(2020년 평균 환율 기준)
외환보유고	303억 달러
교역규모	○ 수출 : 1,419억 달러 ○ 수입 : 1,442억 달러

3. 한-오스트리아 관계

국교 수립 및 체결 협정

- 조·오 수호통상조약(1892)
- 외교관계 수립(1963)
- 무역협정(1971.9)
- 섬유협정(1979.6)
- 사증면제협정(1979.3)
- 항공협정(1979.5)
- 이종과세방지협정(1987.12)
- 투자보장협정(1991.3)
- 과학기술협력협정(2007.9)
- 사회보장협정 및 행정약정(2010.10)
- 워킹홀리데이 발효(2012.9)
- 산림기술교류협약(2012.10)

교역 규모 및 주요 품목

- 2020년 기준 對오스트리아 수출 10억 6,535만, 對오스트리아 수입 16억 2,734만 (무역수지 적자 5억 6,199만)
- 對오스트리아 주요 수출품목 : 전산기록매체, 무선전화기, 집적회로반도체, 전기자동차 등
- 對오스트리아 주요 수입품목 : 승용차, 가축육류, 자동차부품, 의약품 등

교민

- 약 2,550명(유학생 약 1,300명)

II. 오스트리아 경제 동향

1. 경제 동향

□ 작지만 강한 대표 강소국

- 오스트리아는 인구 893만의 작은 국가이지만,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
- 화학, 물리학, 의학 등 기초 과학 부문에 강점
 - 총 15명(생리학(7), 화학(5), 물리학(3))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
- 레드불(Red Bull), 스와로브스키(Swarovski) 등 세계적 브랜드 보유

□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

- 중소기업(종업원수 250명·매출 50백만 유로 이하)이 전체 기업의 99.7%를 차지하며,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
 - 오스트리아는 116개의 히든챔피언을 보유한 바, 이는 독일(1,307개), 미국(366개), 일본(220개)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숫자임
 - * 히든챔피언 : 세계시장 점유율 1-3위, 매출 50억 유로 이하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소 기업
- 자동차, 환경, 플라스틱 등 주요 산업별로 다수의 클러스터(Cluster)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음
- Magna Steyr(자동차), Voest Alpine(철강), Andritz(기계), Palfinger(건설기계) 등 우수 제조기업 보유
 - 자체 시장규모가 작고 인건비 수준이 높은 이유 등으로 인해 소비재, 가전 등 경공업 분야의 비중은 낮지만, 철강, 자동차부품 등 중공업 경쟁력이 매우 강함

□ 활발한 R&D 국제협력

- 오스트리아의 R&D 해외자금 비율은 약 20%로서(한국 1% 정도) 높은 R&D 국제협력성과를 보여주고 있음
- 오스트리아의 높은 R&D 국제협력성과는 오스트리아 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외국기업의 높은 신뢰도에 기인

□ 수출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외지향적 경제구조

- 주요 수출산업은 자동차·기계·의약품 등
 - 자동차의 경우 자체 자동차 생산업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, 세계적인 완성차 조립업체인 Magna Steyr社가 존재하고 있고 자동차 클러스터가 잘 정비되어 있음
- 여행, 건축, 문화 등 서비스부문의 수출에도 강점 보유
 - 전체 수출의 25% 정도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 수출 비중은 2023년까지 30%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

2. 주요 경제 지표

□ 주요 거시 경제 지표

< 오스트리아 주요 경제지표 >

(단위 : %)

구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(전망)
GDP 성장률	2.5	1.4	-6.7	3.4
물가상승률	2.0	1.5	1.4	2.0
실업률	4.8	4.5	5.4	5.1

* 자료원 :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(WIFO), 오스트리아 은행(OeNB),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(WKO)

□ 교역 동향

< 오스트리아의 연도별 수출입실적 >

(단위 : 억 유로, %)

연도	수출		수입		무역수지
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
2017	1,419	8.2	1,489	9.8	-70
2018	1,501	5.7	1,566	5.1	-65
2019	1,535	2.3	1,578	0.8	-43
2020	1,419	-7.5	1,442	-8.6	-23
2021.2.	299	7.6	308	6.9	-9

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

○ 대외 무역 구조적 특징

- 동유럽의 저가 중간재를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중간재로 변환, 독일 글로벌 기업에 수출

*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, 독일과의 언어/역사/문화적 유대관계, 냉전기 동서 유럽의 가교 역할 경험에 기반 동유럽 국가와의 산업 격차 활용

○ 교역 대상 국가별 수출입 동향

- 독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, 2020년 기준 수출액의 30.4%, 수입액의 34.7% 점유
- 체코 및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 발달로 양국 간 교역 급증
- 아시아 수입비중 : 2020년 기준 중국 6위(3.9%), 일본 20위(0.7%), 한국 22위(0.5%)

< 오스트리아 주요 수출 품목 >

(단위 : 백만 유로, %)

순위	비중 (%)	품목	연도			증가율 '20/'19
			2018	2019	2020	
1	17.2	기계 및 부품	26,509	27,585	24,476	-11.3
2	10.4	자동차 및 부품	16,573	17,678	14,737	-16.6
3	9.6	전기/전자제품	15,402	14,482	13,585	-6.2
4	7.3	의약품	8,497	10,058	10,345	2.9
5	4.4	플라스틱	6,936	6,714	6,291	-6.3
총계			150,070	153,501	141,933	-7.5

* 주 : 비중은 2020년 기준

*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

< 오스트리아 주요 수출국 >

(단위 : 백만 유로, %)

순위	비중 (%)	국가	연도			증가율 '20/'19
			2018	2019	2020	
1	30.4	독일	45,049	44,887	43,196	-3.8
2	6.5	미국	10,592	10,187	9,290	-8.8
3	6.2	이태리	9,642	9,657	8,794	-8.9
4	5.3	스위스	7,005	7,254	7,466	2.9
5	4.3	프랑스	6,377	6,700	6,092	-9.1
총계			150,070	153,501	141,933	-7.5

* 주 : 비중은 2020년 기준

*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

< 오스트리아 주요 수입 품목 >

(단위 : 백만 유로, %)

순위	비중 (%)	품목	연도			증가율 '20/'19
			2018	2019	2020	
1	13.2	기계 및 부품	20,645	21,046	19,070	-9.4
2	10.6	자동차 및 부품	17,753	18,592	15,286	-17.8
3	10.2	전기/전자제품	15,146	15,626	14,676	-6.1
4	5.8	석유	12,769	12,291	8,298	-32.5
5	4.8	의약품	6,160	6,814	6,970	2.3
총계			156,580	157,817	144,203	-8.6

* 주 : 비중은 2020년 기준

*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

< 오스트리아 주요 수입국 >

(단위 : 백만 유로, %)

순위	비중 (%)	국가	연도			증가율 '20/'19
			2018	2019	2020	
1	34.7	독일	55,332	54,704	50,052	-8.5
2	7.1	중국	9,107	9,822	10,145	3.3
3	6.3	이태리	9,921	10,353	9,102	-12.1
4	5.2	스위스	6,790	6,055	7,612	25.7
5	4.1	체코	6,770	6,615	5,974	-9.7
총계			156,580	157,817	144,203	-8.6

* 주 : 비중은 2020년 기준

*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

□ 한국과의 교역 현황

○ 한-오 최근 무역 동향

- 2014년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 20억 달러 내외
- 2017년 교역 규모 급증하며 2018년 최고액 29억 달러 달성
- 한국 주력 수출 분야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, 고부가가치 정밀기계 수입 불가피 (반도체 칩 제조장비, 사출기계 등)
- 2017년 이후 완성차 기업 Magna Steyr社가 생산한 BMW(Z4, 5 Series),

MAN社 트럭(바이에른 본사, 오스트리아 공장 일부 생산) 수입이 대폭 늘어 무역 적자 확대

< 한국의 對오스트리아 교역현황 >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	2018년		2019년		2020년		2021년(~4월)	
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
수 출	1,077	12.3	864	-19.7	1,065	23.3	439	29.7
수 입	1,810	12.1	1,553	-14.2	1,627	4.8	630	26.1
수 지	△732	-	△689	-	△562	-	△191	-

* 자료원 : 무역협회

< 한국의 對오스트리아 5대 수출품목 >

(단위 : 천 달러, %)

순위	품목명	2020		2021.4.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	총계	1,065,982	23.3	439,256	29.7
1	전산기록매체	207,606	100	87,273	37.9
2	무선전화기	31,650	107.4	61,851	384.2
3	집적회로반도체	172,634	-4.4	50,561	-13.7
4	전기자동차	102,362	78.7	37,595	53.2
5	자동차부품	73,625	30.2	27,675	33.4

* 자료원 : 무역협회

< 한국의 對오스트리아 5대 수입품목 >

(단위 : 천 달러, %)

순위	품목명	2020		2021.4.	
	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
	총계	1,627,717	4.8	630,152	26.1
1	승용차	309,012	-4.8	223,366	238.2
2	가축육류	55,917	13.3	41,991	180.9
3	자동차부품	74,156	39.3	23,095	-7.6
4	의약품	70,777	6.5	22,999	5.5
5	자동화기기	29,880	149.1	17,078	2,093.9

* 자료원 : 무역협회

□ 한국과의 투자 현황

○ 오스트리아의 對한 투자 동향

- 오스트리아의 對한 투자는 한국 및 동아시아 시장 진출 또는 한국 소재 대기업 납품 목적의 제조업 그린필드 투자가 주종을 이룸

(단위 : 백만 달러, 건)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
투자 금액	1.5	8.3	49.6	4.7	25.6
투자 신고 건수	6	5	4	6	11

* 자료원 : 산업통상자원부, 수출입은행

○ 한국의 對오 투자 동향

- 한국의 對오 투자는 물류, 요식업, 판매법인 등 소규모 투자 중심. 대규모 투자로는 삼성 SDI의 Magna Steyr Battery Systems 인수(2015년 2월, 총 92백만 달러) 및 LG그룹의 ZKW(전장부품) 인수(2018년 4월, 총 1,342백만 달러) 사례가 있음

(단위 : 백만 달러, 건)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
투자 금액	5.9	48.8	1,337.7	4.7	4.4
투자 신고 건수	8	5	15	4	1

* 자료원 : 산업통상자원부, 수출입은행

III. 현지 체류 정보

1. 빈무역관 연락처 및 찾아오시는 방법

□ 빈무역관 연락처

- 주소 : Mariahilfer Strasse 77-79/1/3, A-1060 Vienna, Austria
- 전화 : (43-1) 586 3876, 팩스 : (43-1) 586 3876-30
- E-mail : info@kotra.at
- 웹사이트 : www.kotra.at
- 구글 좌표 : 48.197916, 16.349820

□ 찾아오시는 방법

- 공항 셔틀버스 및 지하철 이용 시
 - 공항에서 Westbahnhof(서부역)행 셔틀버스를 탑승하여 서부역 하차(약 40분 소요)
 - 서부역에서 Simmering행 지하철 3호선(U3) 탑승하여 두 번째 역인 Neubaugasse 역에서 하차 후 지상으로 나오면 Generali Center가 보이는데 이 건물의 3층에 위치(출입구는 건물 가운데 쪽이 아닌 정문 왼쪽 KOTRA 안내현판이 있는 쪽 문임)
- 택시 이용 시
 - 공항 내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항-빈무역관 요금은 30-40유로 정도(30분 내외 소요)
 - 택시를 탑승하는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나 통상 1-2유로 정도 팁을 주는 것이 관행
 - 운전 기사에게 'Mariahilferstrasse 77(마리아힐퍼슈트라세 77)'이라고 주소만 말하면 목적지인 빈무역관에 바로 도착 가능
- 기타
 - S-Bahn(교외선 기차로, S7 등 여러 노선이 시내 중심인 Wien Mitte, Wien Hauptbahnhof까지 운행)을 통해 시내 이동 후 지하철 3호선 U3로 환승 가능. 공항철도 CAT(시내 중심 Wien Mitte 역까지 논스톱 운행) 또한 편리하나,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운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 확인 필요

2. 현지 체류 참고 사항

□ 비자/출입국 절차

○ 비자

- 비자 협정에 의해 관광객(90일 이내 체류)은 비자가 면제됨
- 장기 체류(취업 및 유학)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함
- 일단 무비자로 입국한 후 사정에 의해 장기 체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체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. 비자 연장은 이미 허가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늦어도 비자 만료 4주 전 연장 신청 권장

○ 출입국 절차

- 출입국 시 특별한 절차는 없음
- 입국 시 신고 필수품이 있을 경우에 자진해서 세관 검사대를 거치며 그 외로는 세관 검사 없이 통관. 단 세관원이 임의적으로 선택해 세관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 샘플 등의 경우 이를 확실히 표시해두는 것이 좋음

□ 날씨

- 대체적으로 대서양 기후의 영향이 많으나, 동부 지역으로 갈수록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두드러짐
-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으며, 겨울에는 구름 낀 날씨가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
- 연평균기온은 15~18도이며, 강수량은 그리 많지 않으나 보슬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음
- 일교차가 커서 감기 유의 필요

□ 환전

- 시내의 일반 상점 등에서는 달러화나 기타 외국 화폐가 통용되지 않으므로 유로화 환전 필요. 달러화는 물론 유럽 각국 통화 그리고 일본 및 호주 통화는 시내 어느 은행에서나 환전 가능
- 한국 지폐는 극히 일부 시내 은행에서만 환전 가능하며, 이 경우 환율을 매우 불리하게 적용하므로 한국 지폐는 가능하면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환전하지 않

는 것이 바람직

- 환전 액수는 무제한. 시내 은행에서의 환전수수료는 1.5-2.0%이며, 공항이나 역 근처 환전소 그리고 호텔에서는 3-5%의 환전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시중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불리

□ 신용카드 이용

- 관광지 및 대형 상점, 대형 식당이 아닌 일반 상점이나 중소 규모 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음. 현금이 아닌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현지 은행의 직불카드(Bankomat 카드) 사용이 일반적이므로, 현지 상점 또는 식당 이용 시 사전에 신용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

□ 전화 이용

- 지하철역 및 시내 곳곳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있음. 공중전화는 동전투입식과 카드사용식의 2가지가 있으며, 시내 중심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도 있음
- 오스트리아→한국으로 통화시 : 00+82 +지역코드 +국번 및 전화번호
(단, 한국 전화번호 맨 앞의 0은 빼 것)
- (예) 010-1234-5678에 전화할 경우→ 00+82+10-1234-5678
- 한국과의 국제 전화료는 분당 250원 정도이며, 호텔에서 사용 시 더 높은 요금 적용

□ 교통

- 오스트리아는 교통 관련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추어진 국가로, 특히 수도 빈의 경우 버스, 트램, 지하철 등으로 이루어진 대중교통망이 매우 발달해 있어 대중교통만을 이용해도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음. 출퇴근 시간대에 해당하는 7-8시 사이, 17-18시 사이의 시간대를 제외하면 도로 정체가 심하거나 대중교통 수단이 인파로 가득 찬 모습을 보는 것이 흔치 않을 정도로 시내 교통 상황은 매우 좋은 상황
- 거리에 다니는 빈 택시를 잡기는 쉽지 않으므로 택시를 타고자 할 때는, 택시 회사에 전화하여 택시를 부르거나, 대로 주변의 택시전문 정차장(Taxi Stand)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

- 콜택시 전화번호 : 01 40100 또는 01 313000

- 대중 교통의 경우 승차권 한 장으로 모든 교통수단(지하철, 트램, 버스 등)을 이용할 수 있음. 승차권은 Tabak(담배가게)이나 지하철 역 매표소 혹은 자동판매기 등에서 1회권, 1일권, 2일권, 3일권, 8일권, 1개월권 등 구입 가능. 트램의 경우는 차내에 승차권 발급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으나, 버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므로 주의

□ 응급상황 대처 요령

- 인명피해 발생 시,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, 경찰 긴급전화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 호출
- 여권/지갑 분실 시 현지 경찰 및 대사관(+43-1-478 1991)으로 연락.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(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)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,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 가능
- 응급 전화번호 - 응급환자 144, 경찰 112, 범죄신고 133, 화재신고 122

□ 기타 참고 사항

- 시차 : 한국보다 7시간 늦음(3월말-10월말 일광절약제 기준, 동절기는 8시간 늦음)
- 전압 : 220 Volt, 50 HZ
- 신용카드
 - 대체로 많은 상점에서 신용카드 사용 가능하나 일부 현금만 받는 곳도 있음
- 팁
 - 일반 식당, 택시 등에서는 통상 전체 금액의 5~10% 정도이며, 호텔에서는 10% 정도가 일반적
- 치안
 - 치안 상태가 좋은 국가여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으나,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간혹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항, 역, 시장 등지에서는 주의 필요

3. 대사관 및 유관기관 연락처

☐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

- 주소 : Gregor Mendel Strasse 25, A-1180, Vienna, Austria
- 전화 : (43-1) 478-1991
- 팩스 : (43-1) 478-1013
- 이메일 : mail@koreaemb.at

☐ 대한항공

- 주소 : Objekt 645, 2.OG, Raum 213, A-1300 Vienna, Austria
- 전화 : (43-1)7007-32515
- 팩스 : (43-1)7007-32524

☐ 한국식당 연락처

식당명	연락처	지역
김치(Das Kimchi)	(43-1)713-3734	빈
상상(Sang Sang, 舊한일관)	(43-1)587-7941	빈
서울식당	(43-1)218-6528	빈
수라(Sura)	(43-1)512-8426	빈
요리(Yori)	(43-57)333-777	빈
코코스(Kokos)	(43)676-523-1412	빈

4. 명소 안내

<p>벨베데레 궁전 (Schloss Belvedere)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스만투르크와의 전쟁에서 빈을 구한 영웅인 오이겐 장군의 여름 별궁. 上宮(Oberes Belvedere)과 下宮(Unteres Belvedere)으로 나뉘어져 있고, 그 사이에는 분수와 바로크풍의 정원이 펼쳐져 있음 - 1955년 4대 강국의 외무장관이 모여 2차대전 후 10년간의 신탁통치를 마치고 오스트리아의 완전한 자유와 독립을 선언한 역사적인 장소 - 현재 구스타프 클림트, 에곤 쉴레 등 대표적인 오스트리아 화가의 작품을 비롯한 19, 20세기 오스트리아 회화가 전시되어 있음
---	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주소 : Prinz Eugen-Strasse 27, 1030 Wien * 전화 : +43-1-795 57-0 * 홈페이지 : https://www.belvedere.at/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슈테판성당 (Stephansdom)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스트리아 최고의 고딕 양식 건축물로 ‘빈의 영혼’으로 불리울 만큼 상징성이 큰 장소 -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137m의 첨탑이 솟아 있음 - 사원이 착공된 것은 12세기 중엽이며, 당초의 양식은 로마네스크였으나 화재로 붕괴된 이후 현재와 같은 고딕 사원으로 재건축 - 사원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안톤 필그림이 조각한 국보급의 설교단, 그 오른쪽 뒤에는 프리드리히 3세의 무덤이 위치해 있음 - 북탑 입구 옆에 있는 지하 묘지 카타콤베에는 오스트리아 역대 황제의 화장한 유골과 내장이 분리되어 수납된 향아리와 흑사병으로 죽은 2,000여 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음 - 남탑은 계단을 통해 70m 높이의 테라스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북탑의 종루가 있는 테라스(60.6m)까지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주소 : Stephansplatz 3, 1010 Wien * 전화 : +43-1-51552 3767 * 홈페이지 : http://www.stephanskirche.at/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왕궁 (Hofburg)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성으로 16-18세기에 세워진 Alteburg와 19-20세기에 세워진 Neuburg(신 왕궁)로 이루어져 있으며, Alteburg(구 왕궁)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음 - Neuburg에는 민속학 박물관 및 왕가의 무기와 악성들의 피아노를 전시한 무기/악기 박물관이 있음 - 또한 왕궁에는 스페인식 승마학교, 빈소년 합창단이 주일 미사 시 성가를 부르는 왕궁 예배당과 신성로마제국의 보물을 전시한 보석박물관(Schatzkammer)이 있음(월요일 휴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주소 : Michaelerkuppel, 1010 Wien * 전화: +43-1-533 7570 * 홈페이지: https://www.hofburg-wien.at/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레오폴트 뮤지움 (Leopold Museum)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에곤 실레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 미술관 - 10개 이상의 박물관, 공연장, 공방, 아틀리에 등이 밀집되어 위치해있는 뮤지움스 크바티어(Museumsquartier)에 속해 있음 - 실레가 남긴 41개 유화작품과 기타 수많은 수채화 및 소묘 전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주소 : Museumsplatz 1, 1070 Wien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화 : +43-1-525700 * 홈페이지 : https://www.leopoldmuseum.org/en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쇤브룬 궁전 (Schloss Schönbrunn)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으로,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의 명으로 1744~1949년 건축 - 현관 건물, 중앙 건물, 글로리에떼(Gloriette ; 대 프러시아 전쟁 승리 기념탑), 아름다운 정원과 숲(총 18km²) 등으로 구성. 궁전 내에는 로코코 양식으로 장식된 1,441개의 방이 있는데, 41개만이 일반 공개되고 있음 - 공개된 방 중 '백만금의 방'은 붉은 장미 목재와 금세공으로 장식되어 있으며, '대무도 회장'은 국빈 접대 시 사용. '거울의 방'은 모차르트가 6세 때 마리아 테레지아 여황제 앞에서 연주하였던 곳으로 유명하며, 후에 모차르트가 마리 앙투아네트 공주에게 청혼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음 * 주소 : Schönbrunner Schloßstraße 47, 1130 Wien * 전화 : +43-1-811 13-0 * 홈페이지 : https://www.schoenbrunn.at/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오페라 극장 (Staatsoper)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869년 궁정 오페라극장으로 세워진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 내부는 로코코 양식 - 파리, 밀라노극장과 더불어 유럽 3대 오페라극장으로 꼽히는데 이 중 가장 공연일수가 많음(7, 8월 휴관) * 주소 : Opernring 2, 1010 Wien * 전화 : +43-1-514 44-2250 * 홈페이지 : 홈페이지: https://www.wiener-staatsoper.at/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우노 시티 (UNO City)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979년에 도나우 강 연변에 개관한 유엔기관용 건축물로 이를 계기로 빈은 뉴욕, 제네바에 이은 제3의 유엔 도시로 변모 - 국제원자력기구(IAEA), 유엔공업개발기구 (UNIDO), 팔레스타인 난민기구, OPEC, 마약위원회, 국제인권문제연구소,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이 상주해 있으며 총 5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

<p>케른트너 거리 (Kärntner Strasse)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립 오페라극장에서 슈테판성당에 이르는 보행자 거리 - 빈 시의 중심가이며 양쪽에 고급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쇼핑가로서 한국의 명동 거리에 해당 - 그라벤, 슈테판스플라츠 등 여러 유적물들이 곳곳에 있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리
<p>빈 숲 (Wienerwald)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빈 숲은 위치상으로 알프스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약 80km²의 광대한 숲으로서 크게 북부의 숲과 남서부의 숲으로 나뉨 - 인근의 그린칭에는 소위 「호이리게」 (올해의 헛포도주)를 즐길 수 있는 선술집이 많이 있음 - 남서부의 숲에는 슈베르트와 인연이 있는 뉘들링(Moedling), 온천지 바덴(Baden), 수도원으로 유명한 하일리겐크로이츠(Heiligenkreuz), 영화 「덧없는 사랑」의 무대 마이어링(Mayerling) 등이 있음

<끝>

해외출장 가이드



www.kotra.or.kr